

東南亞 視察團 紀行文 〈1〉



사진 1. 台灣 우리이(烏來)에서의 團員一同

朴 榮 大 (蔚山 麗都建築 設計社代表)

2月 8日(日) 午後 2時 大韓建築士協會 理事 成一永氏를 團長으로한 協會會員 11名(서울 3명, 충남 1명, 경남 2명 釜山 4명, 제주 1명)과 案内를 担当한 서울交通 觀光 Co의 業務理事 李鎬凡氏를 포함 12名은 協會 會議室에서 東南亞 視察團 結團式을 갖았다.

이 자리에는 日曜日인데도 李圭福會長을 비롯하여 여러 理事와 任職員과 내빈들이 參席하였다.

會長에 對한 出國申告가 있었고 이어서 會長님의 歡送辭를 들었다. 民間外交의 一員임을 自覺하고 좋은 成果를 期待한다는 말씀이다.

아울러 꽃다발 贈呈과 폐난트 授受가 끝나고 會員 互間의 人事를 끝으로 結團式을 맞았다.

6時에 金浦空港國際線 待合室에 再集結하여 出國에 따른 여러가지 수속을 끝내고 會長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CX, 411機에 몸을 실고 어두운 上空을 난다. 高度 10,060m의 높은 空間에서, 많은 業務整理와 바쁜 수속 등 번거롭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一路 異國땅 台北市를 向하고 날고 있다.

옆자리에 앉은 60代 會員 두 분의 건강이 걱정스러웠다. 未踏의 南國을 찾는 나그네의 흥분과 不安, 그리고 많은 課題를 놓고 計劃을 짜보기도 하면서 想念에 젖고 있었다.

機內에서 주는 가벼운 저녁밥을 마치고 西南쪽을 向한 夜間飛行을 계속하였다. 몸도 마음도 똥똥 떠가는 雲上 고고를 맞본 것이라 할까?

〈台灣〉

2月 8日 20時 30分 어둠이 짙은 타이베이(台北) 郊外에 있는 松山 國際空港에 着陸하였다.

現地時間은 우리 나라와의 時差가 1時間 늦었다. 우리는 時針을 1시간 당겨서 現地時間에 맞추었다.

간단한 入國手續을 마쳤다. 무척 많은 旅客들이 붐비고 있다. 우리는 짐을 찾아 空港待合室에 나가니 “大韓民國 建築士 視察團 歡迎”이라 쓴 피켓을 든 키가 큰 中國人 아가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대뜸 우리를 알아 보고 微笑지으며 “安寧하세요” “오시느라 勞苦가 많으셨습니다”라고 유창한 우리 말로 상냥스레 人事를 건넨다. 우리는 몹시 놀라고 무척 반갑기도 했다. 후에 알았지만 그 아가씨는 서울에서 數年間 留學한 미쓰 藤이라는 處女로 現在 이곳 大學生이었다. 더욱이 서울交通 觀光社의 台灣支店에 勤務하고 있다 한다.

날씨는 機體에서 내릴 때 흑!하고 熱氣를 느낄 程度였다. 平均24℃ 였으니 한국의 5·6月과 비슷한 날씨였다.

서울交通에서 나온 버스에 案内되어 車에 올랐다. 車內는 에어컨이 稼動되어 冬服을 입고 온 우리에게 한층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 뒤 12層 現代式 빌딩 앞에 도착하여 下車하였는데 “六福客棧”(Leo Foo-Hotel)라는 看板이 붙어 있다. 나는 慎重廣會員과 Room Made가 되어 628號에 入室한 후 若干의 換錢을 호텔 후론트에서 할 수 있었다.

旅裝을 풀고 칼라 TV를 보면서 잠시 休息을 취한 後 1層 후론트에 내려가 보았다. 많은 中國人·美國人·日本人들이 저마다 固有의 衣裳으로 서성대고 있었다.

異國에서의 첫날 밤을 中國 호텔에서 쉬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1시가 넘도록 잠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얽은 興분이 나를 잠싸고 있는 탓일까?

2月9日(月) 晴 새벽 6時頃 일어났다. 아직도 먼 동은 뜨지 않았다. 8時頃 1層 食堂 洋食部에서 빵과 에그후라이를 들면서, 아침 식사를 끝냈다.

台灣은 南國 情緒가 깃든 아름다운 숲으로 덮인 꿈의 섬나라라고 하는데 섬은 3분의 2가 山으로 덮여 있고 地形은 고구마 形態로 北에서 南으로 산맥이 떨어 내렸다. 首都 타이베이(台北)는 有名한 貿易港 基隆市와 近接한 內陸 쪽에 位置하였고 대만 전체 總面積은 35,911km² 이고 人口1,600萬 가량이며 通用語는 中國語다. 기후는 亞熱帶性으로 常夏의 나라이다.

淸日 戰爭後 日本 植民地가 되었다가 2次大戰後 中國에 復歸되었다. 이는 分斷된 우리 母國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國民政府가 遷都하면서 內陸에서 200萬 大人口가 集團移住해 왔다.

自由中國은 現在도 複雜한 各樣의 文化를 形成해 가고 있다.

立憲共和國으로 農産物과 輕工業에 依存하고 있으나 主要 産物로는 감자, 바나나, 쌀, 꿀등과 製糖 林業등이 活潑하며 漁業도 盛況을 이루고 鈾産物로는 石炭, 鉄鈾, 銅이 出産되며 全人口의 約10%는 原住民인 카오사오족(高砂族)이고 約78%는 후젠 出身의 漢民族이다.

其他는 大戰後 本土에서 渡來한 漢民族이다. 一般 大衆은 후젠 語를 쓰고 있다.

通貨는 通貨單位 一元(一元은 10角) 美貨 1달러는 約40元 그러니 一元은 우리 돈으로 約12원 程度다.

타이베이(台北)는 自由中國의 首都이며 또한 가장 큰 都市이며 重要 觀光都市이며 經濟, 教育, 文化, 宗教, 産業, 交通의 中心地이며 人口 250萬을 收容한 大都市의 면모를 구비하고 있으며 지금도 建設에 拍車를 加하고 있으며 路幅30~40m의 幹線道路가 시원스럽게 펼쳐 있고 高層建物과 Hotel, 近代式 住居건축 등이 都市를 形成하고 있을 뿐더러 市内 到處에 大規模 工事現場을 볼 수 있으며 街路에 넘치는 車輛과 人道의 行人들은 모두가 活氣에 넘쳐 보였다. 市街는 整然하였고 깨끗하고 고무나무의 大街路樹가 더한層 南國의 情緒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Hotel앞에 待機한 마이크로 버스에 올라 台北에서 東南쪽으로 約27km 떨어진 산골에 위치한 우라이(烏來)로 가는 길에 時間이 아침 7시 아워 때인지라 車들이 무척 붐비고 혼잡하다. 이 나라 交通警官은 20歲 前後의 靑少年들로서 가만 制服을 端正하게 입고 있다. 交通學校를 修了한 사람이라야 된다고 한다. 交

通違反은 罰金1,000元이라는 표지가 군데군데 붙어 있다.

中心地 中山路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니 郊外로 나선다. 田園風景은 아주 아름답다. 常綠樹의 푸르름과 푸른 江물이 눈에 들어 온다. 온갖 亞熱帶 奇花 瑤草가 우거져 自然의 풍요함이 이루 形言하기 어렵다. 어제 밤 松山飛行場에서 만난 미스 藤의 淸楚한 모습이 오늘도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를 案内하여 준다.

언덕 밑으로 흐르는 江물을 끼고 돌며 산중턱을 달린지 1時間쯤 후에 下車하였다. 다시 2人乘 작은 動車를 바꾸어 타고 山頂으로 向했다. 그곳은 原住民 高砂族이 살고 있는 泰那樓 文化村이었다. 原色 찬란한 무늬의 固有衣裳을 입고 얼굴에는 文身을 새겨 있었다. 그곳 조그마한 半圓型劇場에서 高砂族 特有의 民俗춤 風俗등을 求景할 수 있었다. 구경이 끝나고 下山할 무렵, 우리 모습을 스냅으로 사진을 찍어 그것을 다시 접시에 옮겨 넣어 가지고 와서 250元인데 200元만 내고 記念으로 사 가라는 것이다.

一行은 걸걸 너털웃음만 웃고 말았다. 下山 길에 山門 앞 廣場에서 記念 촬영을 하였다.

우리들은 市内에 도착하여 中國式 징기스칸 料理를 먹었다. 이것은 各者가 먹고싶은 고기와 야채와 양념들을 쟁반에 담아 들고 廚房으로 갖어 가면 料理士 2名이 즉석에서 料理하여 준다.

내 제간껏 잘 골라 料理士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는 고개를 가우뚱 한다.

첫 번째 失敗作이다. 再次 또 “에라! 모르겠다” 하며 음식물을 골라 가져다 맡겼더니 그들도 어이 없이 웃고 만다.

우리는 모두가 얼굴을 맛매고 하! 하! 허! 허! 하고 破顔大笑하고 말았다.

中國 어디를 가나 商品을 팔려는 強한 그들의 執念에는 사뭇 놀라움을 禁할 수 없었다.

忠烈祠(우리나라 國立墓地)를 둘러서. 景觀 좋은 숲속 길을 달려 陽明山 孔子廟를 갔다. 中國人은 빨간 色彩와 黃金 빛을 좋아 하나보다 도처에 그 빛깔을 즐겨 쓴다. 미스 藤에게 물어 보았더니 中國人은 平和와 共存을 사랑해온 中國民族 本然의 色彩라고 傳한다. 보통 家庭집 大門에도 빨간 빛으로 되어 있다.

“本土收復”이라는 표어가 많이 눈에 띈다. 우리와같은 피맺친 民族의 念願을 읽을 수 있었고 또한 그 筆致가 感嘆할 程度이다. 書體는 거의가 顏真卿楷書體이다. 國立故宮 博物館에 이르렀다. 넓은 앞뜰에 들어서니 石造의 계단이 높이 쌓여 있고 거길 오르니 中央에 中國古代建物 樣式인 博物館 本建物이 우뚝 솟아 그 違容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若干의 現代式 建築美를 加美하여 산뜻하고 淸雅한 感도 것들이고 있었다. 蔣總統의 銅像이 入口 前面에서 있다.



与真機를 맡기고 들어 가게 되어 있었다. 館內는 冷房施設도 잘 되어 있고 그의 照明, 溫度, 防火 防犯設備等 말할 수 없이 完璧한 것 같다. 바닥에 깔린 大理石의 色調와 光沢은 더한層 人類歷史에 대해 莊嚴함이 있다. 殷나라로부터 淸나라에 이르기까지 五千年에 걸친 찬란한 中國文化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博物館은 中華民國의 創始者라 일컫는 孫文 탄신 100週年을 記念하기 爲하여 建立된 것으로 무려 30萬점의 國寶級 藝術品이 소장되어 있으며 3個月마다 한 번씩 바꾸어 展示하는데 完全히 다 보려면 約 10年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展示品 中에는 古代石墳墓, 石器, 甲骨文, 金石文, 玉器 古書畫 金銀 細工 장식품 자기 그릇따위를 淸할 때 實로 놀라움을 禁하지 못한다.

果然 中國 大陸다운 巨大한 文化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漢文化의 昇華의 결정이라 할까?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中國을 가면 故宮 博物館을 보아라’는 말이 이제야 무엇을 意未하는지, 알 것 같다.

나는 이곤 館內에서 複製된 古書芸冊 2卷을 購入하여 所重히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는 짜여진 바쁜 日程속에 하나라도 많이 보고 또 記憶을 간직하려고 이리 저리 다니며 氣를 쓴다.

우리는 미리 아침에 이곳 台灣 建築師公會와 連絡을 取하여 下午 5時에 訪問하기로 되어있기에 더 있고싶은 아쉬움을 갖던채 博物館을 뒤로 하였다.

公會事務室은 建物 4層이었고 4層全體를 쓰고있는

데도 비좁을 程度였다. 台灣建築師公會 會長 以下 여러 任會員이 左列에 자리하고 우리의 一行은 右列에 앉았다.

會長의 먼 길을 찾아준 勞苦에 感謝한다는 人事와 致賀말씀이 있었고 兩國間에 友好增進과 技術協力 그리고 定期 交流 등에 淸해 진지한 말씀이 있는 後 일일이 會員 한 분 한 분을 紹介하여 주셨다.

이어 우리측 成團長任의 答辭와 李圭福會長의 旅費一切 부담의 會長 초청장을 傳達하였다. 우리側 人事紹介가 끝나고 패난트와 많은 冊子를 交換했다. 그들은 特히 “韓國 綜合 建設資材 總覽”책을 본 後 자못 敬탄과 致賀를 禁지 못한다고 말한다. 人參茶 몇 箱子를 贈呈하였다.

會長은 法規 冊과 建築作品 圖錄 몇 卷을 주었다. 實로 國境을 超越한 건축인으로서 건축 制限 問題인 設計監理, 行政, 施工, 資材, 建築法, 土法을 爲始한 討議 및 質疑를 거듭하였다. 通譯은 미쓰藤이 유창하고 저침없이 말아 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나라 건축사법, 건축법, 보수 料率表까지 가지고 있는 데 놀랐다.

自由中國 總건축사數는 約 800名, 그중 400名이 首都 타이베이에서 事務室을 登錄開設하고 있다 한다. 이곳에서는 4層 까지의 建築物은 適法合當하다고 認定될 때에 건축사가 許可하고 監理해서 竣工處理를 하고 官에 通報하고 있다 한다. 건축사 月 平均 收入이 韓貨 約120萬원~150萬원 程度라 하니 부러운 일이다. 또 女會員들의 활약이 크다고 들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미리 준비된 市內 國際호텔 11層 大宴會場에 가서 食事와 美酒를 마음껏 들며 이야기 하자는 그들의 提議에 따라 우리 車便에 同乘하여 더욱 번화한 大規模 中國 飲食店에 案内되었다. 거기는 回轉式 円卓인데 山海珍味の 이름을 알 수 없는 料理를 먹으며 中國語로 “하-우”하면서 마신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얹어 보이며 거나하게 몇 순배가 돌았는지 記憶도 삼삼하다.

三三五五 짝이 되어, 더러는 人生을 論하고, 더러는 事業을 이야기하고, 더러는 子女들의 앞날을 이야기 하며 話題의 꽃을 피웠다. 그들의 淸待에 흐뭇함을 느끼면서 日本語로 意思소통을 하기도 하고, 혹은 英語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리를 같이한 台北市 建築師會 理事겸 總幹事인 葉冠氏는 펍 快活하며 유창한 日本말로 自己 딸이 大學에 다니며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했다.

葉氏는 台北市 大稻埕 國際라이온즈 前會長이라고 옆사람이 귀뜸해 주었다. 나는 더욱 반가웠다. 나와는 같은 국제 라이온즈 멤버가 아닌가? 더욱 親近感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韓國을 一次訪問한 經驗이 있다고

하며 今年 6月頃 再次 訪問할 計劃이라 했다. 그때 連絡을 取해 달라는 當부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은 9時가 훨씬 넘어서 아쉬운 作別을 하였다.

우리는 다음 目的地 배이 투(北投)를 向해 約 40分間 市外로 달려 이름난 温泉 休養地에 닿았다.

우리는 巨大하고 웅장한 華南大飯店(Insular Hotel) 別館에 다시 짐을 풀었다. 日本 歌謡曲과 外國人 붐비는 소음에 섞여 흥청거리는 거리, 술렁이는 酒店, 大部分이 日本人이었다이곳을 일러 “泉之郷”이라고 한다. 冷房施設도 잘 되었다. 나는 南쪽 窓너머로 멀리 숲사이에 보이는 크고 작은 네온과 전등불을 보며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整理하며 生覺했다. 그리고 故國의 家族에게 이곳 消息을 傳하는 葉書를 썼다.

2月 10日(火) 晴

8時 起床, 30分後 日本定食이 房으로 配達된다. 故國을 떠나 처음 쌀밥을 먹어 본다. 몽글하고 鄉愁에 젖는다. 나는 冷水에 밥을 말고 집에서 가져 온 양념 깨 소금을 반찬 삼아 먹었다.

어제 밤 酒席에서 대만 建築師 葉氏와 吳氏 그리고 康氏게 謝意를 表하는 거북선 담배와 패난트를 各各 書類 봉투에 넣어 서울 交通 職員便에 보냈다. 버스를 타고 出發하였다. “泉都” 北投여 잘 있거라.

松山國際空港으로 가는 길에 中國에서 이름난 大理石 加工 工場을 見學하고 工藝品 몇 점을 購入했다.

1時 25分 台灣發 CX. 551機를 탔다. 우리가 탄 飛行機는 점점 높이 날라 2日間 머물렀던 寶島를 뒤에 두고 쏜살같이 날고 있다. 情다운 建築同好人들 그리고 고마웠던 案内人들을 두고 멀리 멀리 사라져 간다.

下午 3時 自由貿易港 香港에 無事히 安着했다. 1時間 남짓 空港에서 머문 뒤 CX701機를 갈아타고 泰國 曼谷으로 가는 旅程에 올랐다. 中食과 夕食은 機內에서 간단히 들었다.

스튜어데스는 다행이 韓國 아가씨였다. 반가웠다. 機內에서 그림 葉書를 얻어 故國 親友에게 消息을 보냈다. 물론 機內에서 發送하는 葉書는 航空社 부담의 無料 서비스이다.

機內 放送은 到着 予定地 曼谷의 氣溫은 28℃, 日氣는 清明, 7時 10分 正確히 到着될 것이라 伝한다. 時差는 韓國과 2時間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空港에 내려 서는 순간 확! 하고 뜨거운 熱氣가 느껴진다. 참으로 멀리 南國에 왔구나 하고 實感하게 된다. 入國手續은 꽤 늦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니 “Well Come Korea Architects”라고 쓴 피켓을 든 40代 단정한 모습의 婦人이 우리를 맞이한다. 現地 旅行社에서 나온 가이드인 것이다.

그 女人의 눈매는 異國人답게 생겼으며 아주 神秘한 눈매를 한 湖水처럼 반짝이는 고운 눈동자였으며 부드러운 微笑가 흘러 넘친다.

버스에 실려 約35분간 달리니 市內에 다달은다. 女人은 대략적인 曼谷의 名物들을 소개하여 준다. 英語는 우리 一行中 李鎬凡氏가 맡아서 해준다. 이윽고 車는 “Montien Hotel”이라 쓴 육중한 건물앞에 정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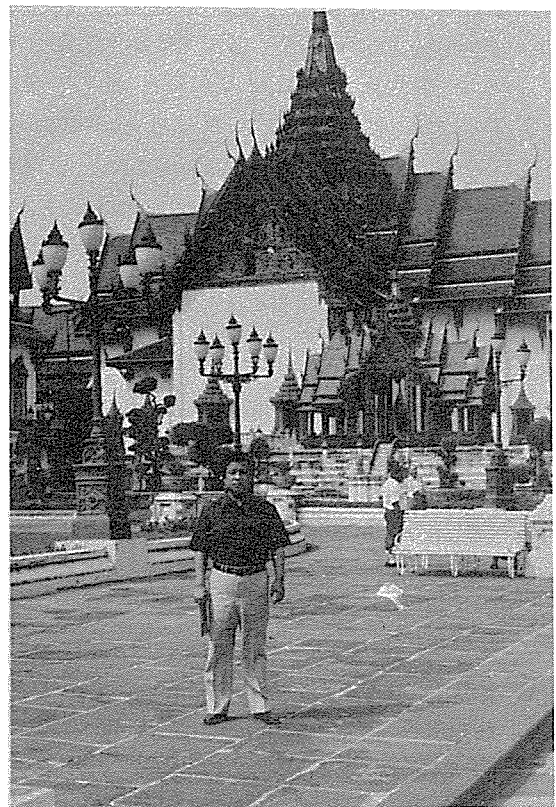
225號室의 配定을 받고 旅裝을 풀었다. 가벼운 목욕을 하고 양말 손수건등을 빨아 넣고 밤거리로 나왔다. 거리에 이곳 저곳에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터키 바-스에 손님을 끄는 靑少年들이 집요하게 달라 붙는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숙소로 돌아왔다. 후론트에서 若干의 換錢을 하였다. 화폐 단위는 ‘Baht’ U. S 달러 1弗은 約 20Baht이다.

來日의 旅行을 爲하여 1時頃에야 寢台로 돌아가서 잠을 請해 본다.

〈曼谷〉

2月 11日(水) 晴 6時에 起床 7時에 1層 레스토랑에서 빵·란치로서 아침 食事を 끝냈다. 풀 앞에서 기념 촬영.

泰國은 印度支那半島 中央에 자리하여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등과 國境을 이루고 있다. 北部地方에는 山岳이 많고 그 山岳에 둘러싸인 넓은 平野를 매남 江이 흐르고 있다.



뱅크는 東南亞에 重要 空港으로서 아시아 各國은 勿論, 유럽과 連結되는 國際交通의 要路이다. 總 面積 514,000km²이고 總人口 4,000萬名이나 되며 立憲 君主國으로 言語文字는 他們 固有의 것을 가지고 있다.

外侵없이 獨立을 維持해 온 그들은 國民이 沈着 하였고 矜持가 大端하다. 寺院은 물론 王宮까지도 觀光客에게 開放하고 있다.

越南 共產化 以後 政情이 不安한 것도 事實 이지만 政黨이 20餘個나 亂立되어 있어 事態가 流動的인 面도 엿보인다. 그러나 佛敎의 나라답게 곳곳에 寺院의 尖塔이 보이고 黃色法衣를 두른 스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僧侶가 오면 길을 비켜주는 風習이 어디에나 있다.

뱅크는 人口 400萬의 大都市다. 메남江으로부터 30km 올라간 델타의 中心에 位置하며 江과 運河의 水路가 옛부터 重要한 交通路였다.

뱅크는 넓고 낮은 델타여서 湿度가 높고 덥다. 地下 30cm만 파면 어디서나 물이 솟는다고 한다. 그러나 高層建物을 세우기는 適合하지 못한 곳이다.

市街 中心地를 벗어나면 四方八方 Klongs라 불리는 運河가 通하고 이 물은 모두가 메남江으로 흐르고 있다.

뒷골목에는 크롱이 通路가 되며 特異한 水上家屋이 즐비하게 서 있고 그 속에 점포도 있고 배 위에서 市場이 열리기도 한다. 이곳 商權은 華商들이 거의 쥐고 있고 自動車가 붐비는 곳에 차이나타운이 있다. 길가에는 南國의 과일을 파는 점포가 즐비하고 飲食店 小劇場이 소음과 함께 뒤범벅이 되고 있다.

市街 東쪽에는 大學과 病院, 各國大使館, 公園, 골프場, 競馬場等 現代式 建物이 즐비하게 있고 泰國에는 우리 僑胞도 많다고 한다. 뱅콕에만도 100名은 더 있으리라 한다. 가이드에게 韓國人 通譯을 부탁했더니 李某氏를 소개한다.

키가 작고 구리 빛 피부로 보아 흡사 泰國人 같으나 엄연한 우리 同胞였다. 40代로 보이는 李氏는 越南에 있다가 泰國에 왔으며 泰國 永住權을 가지고 現在는 貴金屬等 여러 事業에 從事하고 있다 한다. 財産도 着實히 모았다고 한다. 그는 市内 中心商街에 빌딩도 두어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 國際기구인 Escap에 있는 知人을 찾고자 電話번호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自己와 親하다며 대뜸 집 電話를 알려준다.

市内 觀光을 하였다. 寺院들은 모두 놀라운 규모였다. 높이 5cm 가량의 純金 佛像은 햇빛에 눈부신 至尊의 偉容을 發輝하고 있으며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佛像과는 判異하다. 얼굴 모습이 여위고 가름한 使이다. 한편

또한 에메랄드寺院에서는 높이 60cm 가로 45cm의 에메랄드 佛像은 더할 수 없이 貴한 것이라 한다. 더욱이 1년에 네 번, 親히 國王이 나와 에메랄드 佛像의 옷을 갈아 입힌다고 한다.

代理石이 깔린 寺院 바닥에는 독실한 佛敎徒들이 하얀 그릇에 冷水를 담아 들고 긴 좁은 불을 부치고 몇 번이고 절하면서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이 佛像을 一時 道적을 맞았으나 여러 나라를 轉轉하다 다시 찾아 왔다고 한다. 이곳에 사는 華商들은 힘껏 노력해서 돈을 벌어 國王에게 喜捨하면 國王과 한 번 자리를 같이하게 된다. 그때 찍은 기념 사진을 自己商店에 걸어 두고 平生의 자랑으로 삼는다 한다.

또한 劇場도 많다. 觀客이 많은 理由는 한낮 더울 때, 밤도 식힐 겸, 住民들은 이곳에서 피서 겸,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는 모양이다.

극장 간판을 보니 요즘 美國에서 크게 성왕을 이룬다는 “상어” 映画 宣傳이 붙어 있다. 西部映画에서 볼 수 없는 찰스 브론슨이 권총을 빼어 들고 있는 시니칼한 모습도 보인다.

점심 때는 韓國式 食堂 “高麗亭”에 갔다. 2層 別室에서 韓食을 시켰더니 쌀밥과 김치와 각두기 그리고 오이소박이가 나왔다. 그러나 내 平素 즐겨 먹는 고추장 생각에 견딜수가 없다.

그래서 고추장을 請했더니 이것이 웬일이냐 한 말로 고추장도 아닌 토마토 캐잡에 가깝다. 그곳 食性에 영합한 國籍 없는 음식이었다.

오는 길에 寢佛敎 寺院에 들렀다. 팔 벼개를 뽀 부쳐가 길게 누워 있다. 물경 길이 50m 높이 24m 나 된다. 歸路에 우리는 泰國 國防省 앞 廣場에서 旧式 녹솔은 大砲들을 보았다.

日帝때 日本 軍人들 비슷한 軍服차림의 軍人들도 더러 보인다.

午後 3時頃 自由 時間을 얻었다. 案内와 通譯을 맡아 준 우리 교포 李氏 점포에 가서 記念品 몇 개를 샀다.

泰國 建設工事を 맡은 우리 나라 共榮土建의 職員 몇 사람이 찾아 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 7時 集合해서 이곳 泰國 傳統 食事を 하고 民俗舞踊을 보기 위해 SuWannah에 갔다.

外國人이 많았다. 約 600여명은 수용할수 있다고 한다. 舞台 幕 앞에 樂士들이 5~6名 앉아 있고 指定座席에 앉으니 泰國式 食事が 나왔다. 음식은 먹는 시늉만 하고 대신 시원한 맥주를 마시노라니 잠시 뒤 音樂의 선율이 흐르고 泰國 古典衣裳을 한, 女人이 나와 人事를 하고 說明을 한다. 이어 다섯 사람의 또다른 女子들이 나왔다.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춘다. 머리에는 寺院의 尖塔같은 帽子를 쓰고 발은 맨발이었다. 南國

特有의 情熱의 가락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새 조용하고 극히 靜인 리듬이 섞바뀌기도 한다.

저녁에 宿所에 돌아 오는 길로 李氏에게 電話를 걸었다. 내가 蔚山서 食品代理店을 하고 있는 会社, 韓國酪農乳業株式會社의 製品인 매일분유의 輸出相談을 相議코자 하였다. 지금까지 줄곧 市内를 거닐며 눈여겨 보았고 그곳 製品의 샘플을 蒐集하여 왔었다. 밤중인데도 李氏는 直接 車를 몰고 왔다.

現地에서 同業하고 있는 泰國人 青年한 名을 동반하고 왔다. 나는 우리 会社 製品를 說明하였고 將次 展望과 國際市場에서의 動向을 ぶり핑 했다. 李氏는 큰 知識이나 情報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日製粉乳가 조금 나오는 정도라고 한다. 市場調査(外製의 月間 消費量과 各國 製品別 包裝單位, 價格)를 依賴하였다. 그도 快히 승락하였다.

그도 우리나라 商品中 文房具類 特히 볼펜, 싸인펜, 매직, 萬年筆의 샘플과 價格等 商談과 希望여부를 調査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回信해 줄것을 要請했다.

물론 OK, 그들이 가고 才二信을 故卿 집으로 썼다. 이튿날 上午 暫間의 時間을 得하여 乳製品의 市場 調査에 나섰다. 特히 調製粉乳의 市場 侵透가 容易하리라 너졌다.

12時40分에 C X 703으로 佛敎의 나라 泰國를 떠나 赤道 가까이 있는 新加坡로 向했다.

내머리 속은 至今도 泰國의 가지 가지 일들이 腦裡에 스쳐간다. 스테기에 쌓인 거리 냄새 나는 뒷골목 거리에 나와있는 맨발의 失業者들 未開한 住民들의 水船生活·不安한 政情 모두가 複雜 하게만 느껴진다.

偉大한 佛敎文化를 昇華시키고 外侵을 막고 오-랜 獨立을 지켜온 이 거룩한 民族은 그 疲勞에 지쳐 긴 잠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그같은 눈동자는 지금 世界가 숨막히는 國際競爭의 소용돌이 속서 自己를 지키고 나아가 自己發展을 圖謀하는 이時代를 어떻게 보며 무엇을 生覺하고 있을까?

<新加坡>

3時 20分, 太陽熱이 따가운 新加坡 空港 滑走路에 우리가 탄 巨大한 나라는 멈췄다.

入国手統은 끝나고 大型 밴즈 버스에 짐과 같이 탔다. 市内 中心地에 予約된 Merin Hotel로 向했다.

椰子의 숲과 南國의 強烈한 햇빛이 함께 빛난다. 흰색의 高層건물들 유럽의인 印象이 풍기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新加坡의 詩情이 넘치는 浪漫的인 섬나라였다.

空港에서 新加坡 政府當局 發行의 “今週의 新加坡” 案内라는 小冊子를 뽑아 보니 娛樂, 交通, 觀光 案内가 있는데 要注意란에 눈이 갔다. 자세히 훑어보니 에레베타, 映畫館, 劇場, 公共버스 其他 禁煙 表示 区域

에서는 喫煙하면 罰金 新加坡 화폐로 500 \$ 以下の 罰金を 물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控초 휴지등을 아무데나 버려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東西洋 文物이 交叉하는 地點인데 장발 단속이 있다고 한다.

Y샤쓰의 깃을 덮을 程度라면 警告를 받고 制限 民願書類도 가장 늦게 發給받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곧 Hotel에 도착하여 590호실 키-를 받았다. 훌륭한 建物이다. 지금까지 묵은 호텔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이었다. 冷房施設도 잘 되었거니와 浴室또한 施設이 잘 되었었다. 房도 넓고 旅窓의 風景이 아주 훌륭하다. 椰子나무 街路樹가 시원하게 뻗어 있는 데, 自動車가 시원하게 疾走한다. 그 넘어 氾泡沫의 파도가 넘실대고 그위에 점점이 배들이 한가롭게 떠 있고 水平線 위에 흰 뭉게 구름이 가볍게 떠 있다. 나는 그 황홀한 풍경에 나를 잊는다.

新加坡는 馬來半島 最南端에 位置 하였고 菱形의 작은 섬이다. 모두 584km²마레 最南端 조홀 바-투와는 不過 1,23km의 道橋로써 連結되어 있다. 定溫多濕 하며 平均氣溫 31℃ 最低氣溫 24℃라한다. 地勢는 아주 좁고 가장 높은 부끼마데 힐은 해발 177m 全國土가 차츰 工業化 되고 있는 느낌이다. 中央高地의 장굴은 自然 保護區域으로 되어있다. 中心 변화가 約 直徑100km 以內는 現代化의 發展을 계속하여 土地의 最有効 利用度를 爲해 再開發 地區로 指定되어 目下 눈부신 建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1819年 英國의 東印度 會社가 겨우 60萬弗을 주고 샀다는 新加坡는 人口 220萬, 住民 74%가 中國系사람이고 역시 이들이 主要 商權을 장악하고 그 밖에 亞細亞系·유럽系人들이 많아 國際的인 零困氣를 풍기고 있다. 第2次大戰 初期에 美·英連合軍이 敗退하고 日本軍에 依해서 統治를 받았다. 그때 南島라 불리우던 中學校時節의 記憶이 되살아 난다.

1954年 新憲法이 承認되고 1955年 4月 旅選이 實施되고 마살이 이끄는 內閣이 出帆하였다. 그後 美國과의 繼統的인 交涉結果 自治權을 認定받아 外交 國防을 除外한 英聯邦內의 自治國으로 單一國家 말레이 聯邦을 形成해왔으나 1965年 8月 9日 新加坡는 人種的인 問題와 經濟的 對立으로 말레이자를 脫退하여 獨立한 나라이기도하다.

밤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펍 시원하여 지나기가 좋다. 낮거리엔 사람들이 別로 안보이나 밤엔 모두가 거리와 公園에 나와서 흥성되며 지낸다.

輝煌찬란한 내온과 불빛은 漆黑의 바다위에 아름답게 비쳐 한層더 浪漫을 더해준다. 아무튼 어디로 가나 섬全體가 하나의 庭園이라 할수 있겠다.

또 싱가포르港은 世界第4位의 港口이며 東洋第2의 港口답게 그넓은 港口엔 많은 船舶들이 定泊해 있다.

通用言語는 英語·中國語·말레지아語 등이 混用하고 있다.

通貨는 싱가포르 달러를 쓴다. 싱가포르달러 1\$은 우리돈으로 約170원 程度가 된다.

저녁 食事는 싱가포르 唯一의 韓國食堂에 가서 2層의 아담한 寒室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 앉았다. 스피카에는 情다운 우리의 가요곡이 全館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나는 그동안 바쁜 日程속에 잊었던 故國을 다시 찾게 한다. 시중을 더는 아가씨들이 모두 색동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다. 우리말로 故鄉이 어디냐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全然말을 모른다. 英語로 물어보니 그들은 모두 싱가포르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主人도 그러하다고 한다. 얼마前까지 單한사람의 韓國人料理士가 있었는데 歸國했다 한다. 우리는 妙한 生覺에 잠기면서 불고기와 김치와 麥酒를 마셨다.

얼마 후 그 집에서 나와 다시 一行은 버스를 탔다. 案内人은 체구가 당당한 印度系의 40代 男子였다. 運轉手는 倭少한 日本人系의 40代 男子였다.

우리는 얼마 후 싱가포르 夜景이 한 눈에 보이는 Faber 언덕에 到着하여 市内를 淸淸히 觀望하였다.

歸路에 에리자베스 散步路를 해서 이곳 外來 觀光客의 名物인 各種海産物 料理를 파는 露天食堂을 求景하였다. 食堂 종업원들은 “日本人입니까?”하더니 “모리소바 아리마스” “오이시-데스요”하며 손을 끈다.

Hotel에 돌아 오니 술기가 돌아 心身이 피로하고 路毒이 육신을 엄습한다.

後에 안 事實이지만 東南亞 各國의 맥주는 度数가 우리나라 보다 倍가 더 된다는 것이다.

